

# 박물관에서 만나는 의식주

The Necessities of Life: Clothing, Food and Shelter



다음 전시품을 찾아보고 가족과 이야기해 보세요.

Please find following objects from the designated galleries and talk with your family.



1층 108 신라  
1F 108 Silla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1층 104 부여·삼한  
1F 104 Buyeo · Samhan

왜 구멍이 뚫려 있을까요?



1층 105 고구려  
1F 105 Goguryeo

이 집의 방은 몇 개일지 상상해보세요.



1층 111 통일신라  
1F 111 Unified Silla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요?



1층 113 고려 I  
1F 113 Goryeo Dynasty I

이 병에 무엇을 담았을까요?



1층 106 백제  
1F 106 Baekje Kingdom

어떤 무늬가 새겨져 있나요?



1층 120 대한제국  
1F 120 Korean Empire

조선실에서 태조 이성계 어진, 영조 어진과 함께 비교해보세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요?



1층 119 조선 III  
1F 119 Joseon Dynasty III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 중에서 무엇과 비슷한가요?



1층 112 발해  
1F 112 Balhae

옆의 다른 전시품들과 모양을 비교해 보세요.

# 해설지

## Answers



집 모양 토기  
*House-shaped Pottery*

이것은 네모난 건물에 기와지붕을 얹은 집 모양 토기입니다. 벽면 중앙에 정사각형 구멍을 내고, 오른쪽과 왼쪽에는 동그란 구멍을 내서 문과 창문을 표현하였고, 일정한 간격으로 골을 파서 기와지붕을 표현하였습니다.



시루  
*Steamer*

이것은 시루입니다. 시루는 곡식을 찌는 데 사용하는 그릇입니다. 바닥의 구멍을 통해 뜨거운 수증기가 올라와 음식물을 익힙니다. 시루를 통해 당시 사람들의 식생활을 엿볼 수 있습니다.



금목걸이  
*Gold Necklace*

이 목걸이는 신라 무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나뭇잎 모양의 금달개를 5개씩 매단 금구슬 77개와 초승달 모양의 비취색 굵은옥 1개를 연결한 화려하고 아름다운 목걸이입니다.



산수무늬 벽돌  
*Patterned Bricks*

이것은 산수무늬를 표현한 벽돌로 건물의 벽면이나 바닥을 장식하는 데 쓰였습니다. 이 벽돌에 표현된 풍경에는 백제 사람들이 꿈꾸던 세계가 담겨있습니다.



‘을유사온서’가 새겨진 매병  
*Celadon with inlaid inscription of Ul-yu-sa-on-seo*

이것은 ‘을유사온서’라는 글씨가 새겨진 매병입니다. ‘을유’는 이 매병이 만들어진 해로, 1345년으로 추정됩니다. ‘사온서’는 궁중에서 쓰는 술과 감주를 공급하던 관청입니다. 따라서 이 매병이 사온서에서 술과 같은 액체를 담는 데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옷걸이  
*Hangers*

이것은 경주 월지에서 발견된 옷걸이입니다.



연꽃무늬 수막새  
*Roof-end Tiles with Lotus Design*

수막새는 기와의 한 종류로, 목조 건물 지붕의 기왓골 끝에 사용됩니다. 이 수막새는 연꽃무늬로 장식했습니다. 발해의 수막새는 고구려의 영향으로 연꽃무늬가 많습니다.



찬합  
*Tiered Food Box*

찬합은 음식을 여러 층으로 담아 보관하거나 운반할 수 있게 만든 휴대용 그릇입니다. 이 찬합은 맨 아래 원통형 그릇 위에 긴 술병을 올려놓고 잔을 얹은 뒤 뚜껑을 덮어서 사용했습니다.



고종황제 어진  
*Portrait of Emperor Gojong*

어진은 국왕의 초상화로, 이것은 고종황제의 초상화입니다. 1897년에 고종은 황제로 즉위하고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고쳤으며 황제국 위상에 걸맞게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어진 속 고종황제는 황색 곤룡포를 입고 있는데, 황색은 황제를 상징하는 색입니다.